

법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법사(法師) 양성에 교학의 열정이 피는 곳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학장 지일스님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소중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기쁨과 보람이 크다.

종신지계막여수인(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한평생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원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경제 활동을 통해 물질 축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가치 있는 삶의 미덕은 미혹으로부터 맑음으로 안내하고, 자아 완성, 인격 도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자의 삶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국가의 백년대계도 교육이라 하였다. 불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움에 힘쓰는 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 줄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길은 승속을 떠나 중요하다. 출가수행자로서 불교 교학을 통해 불교지도자인 법사양성에 전념하는 그 자세를 일상삼매의 수행이라고 여기는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학장 지일스님을 전격했다.

- 교학일상(敎學一相)이 곧 나의 수행
보편적으로 출가수행자라 하면 세속에서 벗어나 산중사찰 속에서 불도수행자로 수도고행의 길을 걷는 고즈넉한 장면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학장 지일스님은 수행과 수행처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수행은 직심(直心)을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장소를 가리며 수행처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수심(修心)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세속이 수행처고, 수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는 그에 맞는 수행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사(世上萬事)가 무비선(無非禪)이라 합니다.” 수심은 마음 닦는 수행으로 참선과 고행 그리고

경학 등이 있다. 보통 수심은 자아 완성을 이루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있어 그 도(道)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일스님의 수행관은 이것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요, 실천공행(實踐躬行)적 측면에 더욱 가깝고 선가에서 말하는 활발지(活潑地)에서 수행을 한다고 해야 맞을 듯하다. 가장 번잡 도심 속이 스님의 수행처인 것이다.

“나의 수행관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학일상이 나의 수행법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마해야 하고,

“법사는 불교 포교와 설법, 그리고 자기수행을 연마해가고자 수행지위에서 정진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래 원어는 다르마바나까(dharma-bhāṅka)이며 불교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불교전문교육과 수행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불교교육 단체에서 교습받고, 설법, 포교, 수행, 포교원 운영 등 신도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수행 정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불교지도교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법사란 용어는 낮

**교학일상(敎學一相)이 나의 수행관이고
일적연(一適積淵)은 나의 교육관이며
초심지족(初心知足)은 나의 철학입니다.**

포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니 교학수행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 법사(法師) 양성은 무위불사(無爲佛事)
지일스님은 22여년 전부터 불교의 대중화, 생활불교 정책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을 운영하며 불교지도자인 법사(法師:dharma-bhāṅka) 양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법사를 양성하는 업이 곧 수행임을 밝히며 법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사의 정의는 불교 도심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불교 도심(道心)이야말로 법사의 생명력이고 법사가 해야 할 도심행인 것이다. 이에 지일스님은 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선 용어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법사는 그리 낮은 용어가 아닌 익숙한 것이 되었다. 그만큼 불교가 저변확대된 것이며, 또한 시대적 부응에 불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으로 보아 불교의 교육불사(佛敎育佛事)와 재가법사 양성은 불교발전에 큰 원동력이 됨을 엿볼 수 있다.

“불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인재불사가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사사불사(事事佛事)는 필경화진(畢竟化塵)이지만 법사 양성은 무위불사(無爲佛事)입니다. 즉, 훌륭한 인재 양성만이 불교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며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법계공덕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기 그러합니다. 특히나 현대사에서 재가법사(在家法師)의 역할은 불교발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우들의 하계수련회 모습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인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천자문은 광활한 우주’

철학·불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한자 이론

고려·조선시대보다 오히려 오늘날에 이르러 한문 학습자들에게 천자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시종에는 무수한 천자문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 고대전통침구학자인 천명일의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은 기존에 발행된 천자문 서적 중에 단연 돋보이는, 오랜 시간 동안 천자문 관련 서적 다뤄 온 저자에서 균제일학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을 명저임에 틀림없다.

우선 이 책에는 독자들이 전술한만한 저자의 박학다식한, 지적인 내공이 녹아들어 있다. 부산불교경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불교연구가이자 불교이론과 철학과 관련한 수많은 저서들을 남긴 저자는 불교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동양고전과 사상, 의술, 침술, 역학 등으로 천자문을 풀어내며 4차 1구 250수로 이뤄진 천자문의 요체를 밝힌다. 여러 우화들을 예로 들어 심오한 철리가 숨겨져 있는 천자문의 글귀들을 쉽게 풀어내며 천자문의 진정한 대중화를 돕는다. 불교 지식 이외에도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 다양한 종교에 대한 단상 등이 천자문과 함께 글 속에 녹아있다. 천명일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옛 고대 성인들의 해석과 오늘날의 학식, 지식, 상식으로는 현대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천자문에는 초월적, 3차원적,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천자문을 책으로 엮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 가치이기도 한 초월적·3차원적·영적인 세계들은 종교나 사상을 떠나 매우 보편적으로 와 닿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오로지 온 인류의 본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데서 기인한다. 저자는 비록 “너를 알라”는 본디의 가르침을 찾아 천자문을 풀었지만 지혜와 철리를 종교적 틀에만 가두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적

이다 불교적이라며 표현하는데 참 답답하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 등 무궁한 세계가 있다. 예수와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을 논한다. 그러나 종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과 의식의 문제 아닌가?”

천명일 지음 | 지혜의나무 펴냄
신국판 | 533쪽 | 값 18,000원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법화경 해설)

사람답게 살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 법화경 해설

연꽃은 씨앗의 나뭇잎이듯 성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나뭇잎이다. 그 불성(佛性)이 저 더럽고 어두운 진흙 속과 같은 무명(無明)에 가려 있지만 햇빛이라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설법이란 법비[法雨], 즉 물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적당한 온도를 만나면 싹이 터서 자라고 성불이라는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올라 된다. 저 연꽃의 씨앗이 있는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고, 연꽃이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듯이 우리가 누구나 있는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불교 경전하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법화경 해설),’은 그런 독자들에게 희망이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황명찬은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던 노후와 30여 년간 걸친 불교공부를 접목하여 불교경전 법화경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요점을 정리하고 비유와 반목을 통해 경전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수행에 접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동종우의 사진 30여

장이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한 법학 수행을 통해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비로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지혜(佛智慧)를 가지고 있어 본래 부처이고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즐거운 곳이라고 설한다. 우리 마음에서 시비분별을 버리고 아상을 비롯한 모든 상을 버리고 나면 이곳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행복의 땅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것이 바다로 귀일되듯이 법화경 이전의 모든 가르침은 《법화경》이라는 큰 바다에 귀일한다. 법화경에서 부다는 말법시대의 사람들에게 법화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우선 우리는 말법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법화경》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되는지 알아야 하겠다.

황명찬 지음 | 동종우 사진
지혜의나무 펴냄 | 신국판 | 240쪽 | 값 12,000원



전문인재 등용의 시대!

국민교육헌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68년도이다. 헌장 내용중 한 부분이 “타고난 저 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바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인지도 모른다.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본 연구자는 명리학을 통하여 진학의 관계성을 가지고 박사논문

에 임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남, 여 각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83%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70년대는 대학진학률이 27%에 불과한 것이 현재는 10명중 8명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내 놓은 자료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10명중 10명 전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중에서 과거는 명문대를 중시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보다는 학과전공에 더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그만큼 대학을 들어가는 쉬워졌지만 졸업 후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대학에서 학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명문대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을 통하여 결론을 얻었고,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특별전형인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전문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시1,2차를 통하여 학과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성적을 대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만 대학보다 학과의 중요성에 학생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졸업 후 자신이 전공한 분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도 70%에 이르렀다. 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세상을 보는 이치를 알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고 대학은 그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 전문성(전공)을 갖고 사회에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원은 전문가중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이제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평생직업이라는 울타리가 버림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장동력은 첨단과학이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식품에 관한 연구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에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자신이 가장 잘 맞는 특기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화에 대비한 식품에 관한 연구와 국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며 블루칼라가 더욱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맞추어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일찍 발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곧 목적을 실현하는 시대이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명리학에서 심리구조를 통하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90개의 구조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명리학은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유일한 예측학문이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임상과 통계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명리학은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연구하여 삶의 본질을 높여주며 길흉화복을 예지해주는 학문으로 더욱 발달을 할 것이다.

저서, 규명1권(명리입문서), 명리상당술, 진로와전공, 명리 진학정보론 H·P 010-5418-5972

불교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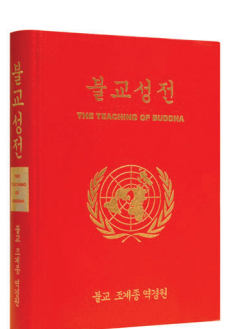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해인스님) 역경원이 ‘불교성전(부처님 말씀)’을 편찬했다. ‘불교성전’은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뽑아 엮은 책으로 부처님, 가르침, 계행, 도반 등 4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도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책 앞쪽은 한글로 기록하고 책 뒤쪽은 영문으로 실어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해인스님은 책 서문에서 “이 경전을 함께 하는 이,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문 -

“이 경을 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다감생(多劫生)동안 고행을 통하여 비로소 보리수 밑에서 정각(正覺)이루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니 광명이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청정심으로 중(宗)을 삼고, 중생의 믿음은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 중(宗)으로 거울을 삼는다. 중생계는 미혹 때문에 중생이 되고 모든 부처님은 청정심으로 부처가 되었다. 중생과 부처는 영상이며 삶과 죽음은 이름 뿐이다. 만일 사람이 부처로써 거울을 삼는다면 ‘계, 정, 해’가 모든 청정성이 선(善)이 되어 신과 하여 성문 연가, 보살 여래가 이로 인하여 나오는 줄 알면 믿고 따르지 않는이 없

고, 중생으로서 거울을 삼는다면 탐, 성, 미, 어리석음이 모든 악의 종이 되어 수라, 축생, 지옥, 아귀가 이로 부터 나오는 줄 알 것이다. 선과 악은 다르다 해도 중(宗)은 동일하다. 한 방울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고 평이해서 누구나 다시 수증기로 구름, 비, 눈, 얼음산을 이루며 다시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다. 이 경전을 열면서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옮기거나 잘못 읽었다면 조 심스럽다. 태양의 광명을 감상할 줄 모르듯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께 겨자씨 만큼이라도 보은(報恩)이 되고자 한다. 부처님 말씀(불교성전)으로 행복의 길을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값 15,000원
문의 : 02)511-2026